켜켜이 쌓인 파편에 담긴 깊은 상처

May 23, 2012 l 이향휘 기자

켜켜이 쌓인 파편에 담긴 깊은 상처

'고백 예술' 창시자 루이스 부르주아 국제갤러리 전시

품 '무제'
국제갤러리>

그의 아버지는 난봉꾼이었다. 그것도 '평범하게'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와 집에서 불륜 행각을 펼쳤다. 뻔뻔한 남편의 행동을 아내는 묵인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작가가 루이스 부르주아(1911~2010)다.

언니처럼 따랐던 가정교사와 어머니, 아버지가 오랫동안 동거한 이상야릇한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와 증오,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그는 예술을 통해 마음껏 분출했다.

그래서일까. 생전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술은 나에게 치유이자 구원"이라고 고백했다. 개인사를 예술로 버무리는 일종의 '고백 예술'을 창시한 부르주아의 개인전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제3관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개인전이 열린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고 작가 타계 이후에는 처음이다. 타이틀은 '저명인사(personages)'.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부르주아가 미술사학자였던 남편을 따라 뉴욕에 정착한 뒤 선보인 1940~1950년대 초기작 위주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 상당수다. 작가가 뉴욕 맨해튼 아파트 옥상에서 조각을 부여잡고 고독과 씨름하던 때였다.

전시장에는 인물을 의인화한 조각상을 비롯해 작품 총 13점이 놓여 있다.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작품, 알베르토 자코메티 조각에 영향받은 듯한 길쭉한 인물상도 눈길을 끈다.

전시장은 파티션으로 나뉘어 있다. 한쪽은 부르주아 초기작이, 또 한쪽은 2006년 대형 설치작품이 놓여 있다. 초기작에서나 말년 작품에서나 그는 자신의 기억에 바탕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을 시도한다.

그는 작품을 의도적으로 바닥에 내려놓아 전시했는데, 당시 조각을 좌대 위에 얹힌 심미적 대상으로서 다루는 관행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도였다.

유진상 계원예술대 교수는 "부르주아 초기작은 토테미즘과 초현실주의, 유럽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민자이자 여성으로서 느꼈을 법한 고독과 소외감, 프랑스에 대한 그리움이 작품에 배어난다"고 설명했다.

부르주아는 데뷔 초기 회화를 선보였으나 곧바로 조각에 눈을 돌렸다. 특히 드로잉과 설치, 손바느질 작업도 조각만큼이나 유명하다. 그의 작품에는 뜨개질도 많이 등장한다. 태피스트리(다채로운 선 염색실로 짜서 만드는 실내 장식물) 가내 수공업을 하던 어머니 영향 덕분이다.

그는 생전 어머니가 뜨개질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예술적 감수성에 눈을 떴다고 털어놨다.

그는 늦깎이로 화단에 데뷔해 느지막이 성공한 대기만성형 작가였다. 마흔 가까이에 예술 세계에 입문했으며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도 70세 즈음이었다. 71세가 되던 1982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회고전을 열면서 미술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작가의 30대 모습.

1999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그의 자기 고백적 예술 세계는 상당수 여성 젊은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국 작가 트레이시 에민은 자신의 경험담을 작품에 투영하며 부르주아 계보를 잇고 있다.

부르주아 작품은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다.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야외에는 대규모 거미 조형물인 '마망'이 설치돼 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뉴욕과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파리 퐁피두센터에 소장돼 있다.

전시는 6월 29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

URL: https://mk.co.kr/news/culture/view/2012/05/315172/